

사 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장에 들어갔던 고성지역 26개 해변이 36일간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문을 닫았다. 피서 절정기인 7월말~8월초에 비가 워낙 잦아 피서객이나 해변 수익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다행이 광복절 연휴에 피서객이 다소 몰리면서 80%선은 유지했다고 한다.

고성군이 집계한 '2011년 피서객 및 차량현황'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몰리던 시범해변과 일반해변은 줄어든 반면, 대체적으로 소규모 마을단위 해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아진, 천진, 봉포, 마차진 해변은 지난해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피서객이 몰렸다.

이는 그동안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여름 해변의 문화가 점점 가족단위로 바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화려한 이벤트와 복적거리의 인파 속에서 화끈한 추억을 만들려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가족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는 점을 감안해, 비가 내려도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설악한화리조트의 워터피아 같은 대규모 시설이 아니더라도, 곳은 날씨 속에서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날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토캠핑장은 특히 앞서 거론한 가족단위로 변하는 피서문화에도 적합한 시설이어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오토캠핑장 설치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성군은 동해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26개의 해변을 보유하고 있는 '해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을 꺼릴 이유가 없다. 더우기 해변은 번영회나 마을 등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와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변 문화 변화에 대응하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군의 해변 운영 정책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 매년 피서 절정기의 곳은 날씨 때문에 피서객이 찾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수도권 피서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토캠핑장이다. 나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맨 땅이나 모래사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비가 스며들지만, 오토캠핑장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곳은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다.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미치는 영토고권(영토주권)을 말한다. 즉 한반도와 유무인의 크고 작은 섬 4,198개로 구성되고, 사람과 물건의 지배권을 갖는 대인주권(대인고권)이다.

우선 역사의 장을 열어보면 멀게는 신라 22대 지증왕 제위 500~515년에 우산국(울릉도)이 항복하였다. 울릉도에서 79km 거리에 있는 큰 섬 작은 섬 두 개의 섬 및 암초 중 수면 위로 솟은 것 합 91개의 섬으로 이뤄진 독도는 1982년 11월 16일 울릉읍 동동리 산 42번지 임야 34필지로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된 섬으로서 울릉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다. 전갱이, 고등어, 해삼, 전복, 미역, 다시아, 오징어, 감치, 대구, 연어, 각종 조개류, 해초류 등과 해저엔 천연가스가 있다. 또한 조류 22종이 서식하는 생동감이 넘치고 경관이 수려한 개발된 현재유인 섬이다.

1904년 광무 8년 일본 군함 쓰시마호의 대마도 독도조사 보고기록지인 '일본해군성발행' 기록에 의하면 매년 여름이면 감치를 잡기 위하여 울릉도민이 수십명씩 작은 집을 짓고 10일간 거주한다는 기록이 보고되었다.

함남 영흥 사람인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독도에서 고기잡이 하는 왜인을 몰아낸 독도 수호의 선봉자이며 어부이자 감독관이다. 안용복은 1696년 단독으로 일본 에도에 가서 울릉도 감세관(감독관)이라 자기를 소개하며, 고기잡이와 도벌을 엄중항의 하고 조선영토임을 확인받았다. 그리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나 귀국길에 쓰시마(대마도) 도주에게 잡혀 이 문서를 빼앗기고 조정에 압송되어 허락 없이 국제문제를 일으켰다는 문제로 귀양 보내졌다. 그후에 쓰시마 도주는 잘못을 사과하고 울릉도를 조선 땅임을 확인통지했으나, 안용복의 죄는 풀리지 않았다. 또한 안용복은 월경한 오끼노시마의 어부를 검문하니 마쓰시마(송도)에서 울릉도로 왔다고 하자, 너희가 부른 마쓰시마는 우리 땅인데 감히 어디를 침범하느냐고 꾸짖고, 자산도(독도)에서 내쫓아 추격하다가 풍랑으로 오끼노시마(은기도)에 표류하였다.

은기도의 도주가 앞서 만나 자기가 울릉도와 자산도(독도)를 조선의 경계로 정하고 간빠구(관백)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침범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냐고 항의하였다. 도주는 호끼주 태수에 보고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그후 소식이 없자 안용복은 호끼주 태수에게 가서 자산도(독도) 침범 사실을 항의했으며, 도주는 15명의 어부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짐하였다.

1923년 시마네현지에 의하면 독도의

대하를 위하여 나까이는 농부성에 교섭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로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인의 포악상 및 노략질은 백만분의 일의 역사에 불과하다.

한편 철종 1861년 천주교 탄압 및 취체 완화 복음화운동성했으나, 대원군이 그해 1월 탄압령을 내려 프랑스 신부와 남종삼 정의배 신도 8천명을 학살하였다. 왜, 이들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이 무모한 행위는 한낱 꿈이었다는 것. 필자는 많은 희생엔 애석하고 섭섭하며 가슴이 아픈 일로 국운좌우에 실마리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한 1866년 병인양요 모멸은 프랑스 함대가 9월 인천 서강 서울근교까지 침입해 시민을 공포케하고 양화진 물치 갑곶 강화부에 상륙, 군기 서적 양식을 약탈한 것은 제국주의 야만적 탐욕이요, 민족적 수모는 천추의 한이다.

또한 1866년 미국 셔먼호사건은 평양에서 일어난 미국상선과 분규사건인데 상품을 싣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민중과 충돌한 것이다. 평안감사 이규수에 의하여 승무원은 몰살당하고 배는 소각된 사건으로 미국은 청국을 통하여 문책을 청하고 동양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함으로써 양이들로 인하여 어재연 외 4명이 전사하였다. 미국측은 해군중위 외 3명이 전사하고 10여명이 부상되었고 다음날 야습하여 미국 함선을 물리친 1871년 신미양요 사건이다.

이에 대원군이 각 지방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강화하였다. 크고 작은 양이들과 충돌은 약탈 노획물의 역사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땅은 니전투구장이 되고 이 틈새에 수호조약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은 명치유신과 신정의 시정방침을 추진했다.

이 시기에 울릉도를 침범하고 울릉도를 송도, 독도를 죽도로 명칭변경을 하였다. 말항 채벌 어업 등을 자행하였다. 1875년 9월엔 강화도 앞바다 운양호 사건을 기화로 살인방화 노략질 약탈 강탈 위협 등 수없이 고난을 당했다. 고종 13년 1876년 2월 26일 명치9년 강화도조약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잠입침투할 수 있는 야심의 계기가 실현되었다. 즉 제국주의 침략적 마수의 발미가 되어서 갖은 음모 술수 회유 책동 압박 협박 매수 등으로 36년 동안 수탈당함과 동시에 민족말살을 하기 위한 사악한 역사였다.

우리말엔 물을 좋아하는 자, 나무타기를 좋아하는 자, 싸움이 잦은 개코 등이 이물 날이 없고 불을 좋아하는 자 불로 망한다더니 바로 그 꼴을 두고 하는 말이로다. 이제 그만 기웃거리지 말고 다툼 없는 네 땅이나 네 물 속을 단속하는 것이 좋겠다.

◇편집국에서

○...고성군이 한국관광평가연구원이 주관한 2011 한국 문화·관광브랜드 대상에서 '혁신 문화·관광정책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도 인정받은 것처럼 고성군은 명파 평화마을조성사업, 화진포·송지호 산소길,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만들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자산을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